

전쟁의 화마가 할킨 현장의 기록

성두경 《다시 돌아와 본 서울》



· 중무로(왼쪽)
· 동대문시장(오른쪽)

언제 총탄이 날아들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은 중군 사진작가는 카인의 시선을 날카롭게 번뜩인다. 전쟁의 화마가 분탕질한 현장에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아무 것도 없었다. 무참히 파괴된 건축물과 인적이 끊어진 거리 위로 뿌옇게 쏟아지는 햇살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뿐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나드는 전선을 쫓으면서도 차마 카메라를 놓지 못했던 성두경(1915~1986년)씨는 사진집 《다시 돌아와 본 서울》(1994, 눈빛)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사진집은 먼저 1951년 겨울 '서울 수복기'의 흥물스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귀곡성이라도 들려올 듯한 명월관 폭삭 주저앉은

서대문경찰서와 중앙우체국, 총탄 자욱이 성성하게 자리한 남대문, 지붕이 날아가고 석탑이 무너져내린 경복궁, 그리고 양상한 철제 골조를 드러낸 수많은 건물들이 전쟁의 파괴성을 증명하고 있다. 인적이 끊긴 마포중점 거리에 나붙은 영문관 이정표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북으로 내달리는 군용 트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생존한 사람들의 생의 한가운데로 들어선다. 무너진 한강철교를 지키는 군인들, 탱크 위에서 잠담을 나누고 있는 미군들, 트럭에 실려가는 중공군 포로의 얼굴에서 생명의 경계를 넘나들던 고통이 묻어난다. 미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엇인가 얻어 먹고 있는 아이들, 황폐한 거리로

나선 보따리 장수들, 양담배 상자를 메고 시장 골목을 배회하는 소녀, 그리고 보급 물자를 타기 위해 구경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전쟁의 화마가 할킨고 간 영혼의 가쁜 숨결이 느껴진다.

사진 외길을 걸어왔던 작가는 사진기자재 판매업을 시작으로 사진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중군 작가를 거쳐 1953년에 주간 신문 《동방사진뉴스》를 창간하여 2년간 발행했고, 1955년에는 반도호텔에 <반도사진문화사>를 개업하여 사진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진을 많이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없었던 그는 살아 생전에 사진집을 펴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2호 / 1998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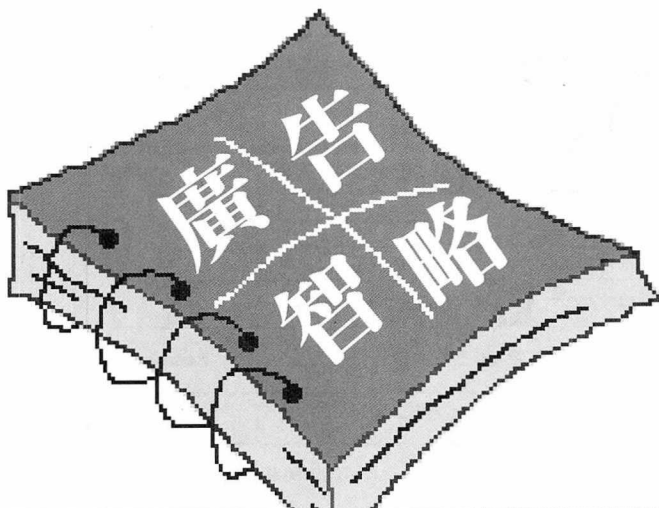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의

광고지략으로 출판계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